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2월 22일

CUOMO 주지사, 제107 항공수송비행단의 신임 사령관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Lancaster 주민이며 사막의 폭풍 작전 및 이라크 전쟁 참전자인 Robert Kilgore 대령이 뉴욕주 방위 공군의 Niagara Falls 공군예비군 기지 소재 제107 항공수송비행단을 지휘하도록 선임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이 비행단의 부사령관으로 봉직하고 있는 Kilgore는 지난 2년 동안 이 비행단을 이끈 John Higgins 대령으로부터 1월 말에 지휘권을 넘겨받을 것입니다.

“Kilgore 대령의 경험과 입증된 리더십은 제107 항공수송비행단의 자산이 될 것이며, 본인은 오늘 그의 사령관 승진을 발표하여 기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용감한 남녀들은 위기에 우리 나라를 방어하고 우리 주를 도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달 서부 뉴욕주 지역 폭설 때였습니다. Kilgore 대령이 지휘권을 갖게 됨에 따라 우리는 뉴욕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 헌신을 계속 볼 것이며, 본인은 그의 리더십과 우리 주를 위한 그의 오랜 봉사에 감사합니다.”

제107 항공수송비행단은 뉴욕주 서부 지역에서 오늘날 공군의 선배들이 프로펠러 추진 P-47 전투기를 몰았던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봉사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부대는 C-130 허큘리스 수송기로부터 MQ-9 “리퍼” 원격 조종 항공기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Kilgore는 최근에 MQ-9 조종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Kilgore(48세)는 1997년부터 뉴욕주 방위 공군의 제107 항공수송비행단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는 4,500여 비행 시간을 가진 지휘 조종사이며, 이 비행단이 KC-135R 재급유 항공기를 날렸을 때 합류하였습니다. 부사령관으로서 그는 자산이 모든 주 및 국가적 요구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요원과 장비의 배치 및 고용을 담당하였습니다.

Kilgore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현역 공군으로 복무하였습니다. 1997년에 뉴욕주 방위 공군에 합류한 이래 그는 비행 지휘관, 작전 장교 및 제136 공중급유 비행 중대 중대장 및 제107 항공수송비행단 정비 그룹 지휘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Kilgore는 또한 뉴욕주 방위 공군의 기획 프로그램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작전 장교, 파견 지휘관으로서 전투에 복무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합동 기지 발라드의 작전 그룹 부사령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Kilgore는 근무공로훈장, 공군 수훈장, 공군 표창 훈장, 합참 우수부대 표창, 남서 아시아 복무 훈장(사막의 폭풍 작전), 이라크 종군 기장 및 글로벌 테러 전쟁 원정군 기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Kilgore는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관리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군지휘참모대학과 공군대학원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부인 및 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